(사)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최영주(46)씨의 논에서 트랙터를 타고 '쌀값 보장'을 촉구하며 애써 키워온 논벼를 갈아엎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르포 – '풍년가 대신 한숨' 나주 남평 들녘

쌀값 폭락 분노의 농심 다 익은 논벼 갈아엎어

"수확은 되레 손해" 차마 못 보고 뒤돌아 눈물

황금빛 들녘은 농민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했다. '풍년가'는 어디가고 슬픈 들노래가 울려퍼졌다. 수확의 기쁨 대신 절망과 분노가 영글어가고 있었다.

28일 오전 11시 (사)한국농업경영인(이하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주관으로 '쌀값 보장 촉구 논벼 갈아엎기' 투쟁이 진행된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최영주(46)씨의 논(1천983.48㎡).

최씨의 논에는 콤바인 대신 트랙터 2대가 들어서 있었다. 붉은 띠를 두른 최씨 등 농민 40명은 논두렁에 올라서서 황금빛 들녘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곧이어 트랙터 2대가 굉음을 내며 애써 키워온 벼를 갈아엎자 최씨 등은 이내 눈길을 돌렸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농민 유재관(52·장성군 북이면)씨가 "쌀값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잇따라 외쳤다. 절절한 외침은 곳곳으로 퍼져나가 트랙터의 굉음을 이겨냈다. 하지만 반(半)년 간 피땀 흘려 가꿔온 최씨의 벼논은 10분 만에 진흙밭으로 변했다. 최씨는 거친 손으로 주름 팬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다.

이들이 수확 대신 논 벼 갈아엎기를 선택한 이유는 산지 벼 가격이 지난 5일 기준 40㎏당 4만8천123원으로 전년대비 14.2% 폭락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쌀 생산 과잉도 가격 폭락에 한 몫 했다. '수확은 되레 손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660㎡(200평) 기준 연간 쌀 생산량은 200㎏(40㎏ 기준 5가마니) 정도이다. 40㎏ 짜리 한 포대당 거래가격은 4만8천123원. 그러나 모내기를 위한 논갈이나 모심기, 벼베기 비용은 660㎡당 각각 3만5천~4만 원선으로 연간 최소 15만원이 들어간다. 벼 밑거름용 비료 가격은 올 들어 20㎏ 기준 1만2천4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25% 올랐다.

인건비도 하루 평균 6만원으로 전년대비 1만~2만원 가량 뛰었다. 결국 인건비와 각종 농자재 값을 제하고 나면 빚만 남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이다.

유씨는 "오죽하면 다 익은 벼를 갈아 엎겠느냐.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산 쌀 10만t을 매입해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가격하락 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공공비축 물량을 늘리고 쌀 수요 공급을 위해 쌀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농연 전남연합회는 이날 ▲공공비축물량 58만t 수준으로 확대 ▲2005~2012년 변동직불금으로 정한 목표가격 17만83원을 현재 최저생산비 19만2천680원으로 상향 조정 ▲휴경농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 조정제 도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전농 광주전남의장 단식

쌀값폭락 농협 대책 촉구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이 쌀값 폭락에 대한 농협의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원주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25일부터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사무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 의장은 "쌀값 대란이 예상되는데 농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농협이 손을 놓고 있다"며 농협이 ▲출하시기 조절 ▲저가미 행사 거부 ▲정부에 쌀 대북지원 촉구 등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경찰 '성매매 비용 대납 의혹' 전남대병원 교수 입건

전공의 8명에 접대비 2,400만원 강요 요구 거부하면 "수술에 참가하지 말라"

'허위 처방전' 진료비 4천여만 원 착복도

전공의들에게 회식비와 성매매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일으킨 전남대병원 A교수의 부당한 요구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접대 등을 강요한 A교수를 형법상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매주 2~3일간 환자 수술이 끝나면 수술에 참가한 전공의들에게 회식장소·참석자·비용부담자를 정해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유흥주점에 가서 한 차례에 100만~4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도록 하는 등 전공의 8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2천4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또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2개월간 전남대병원에서 도입하지 않은 약품을 고가의 약품인 것처럼 처방전에 허위 기재한 뒤 환자 173명에게 한 차례에 15만~20만 원의 치료비를 받는 등 최근까지 276회에 걸쳐 4천1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교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앞으로 나에게 배울 생각을 말라"며 수술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특히 5㎖(1병)의 치료제를 65만 원에 구입해 20명의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처방비를 현금으로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교수의 성매매 접대 강요와 관련, 자주 드나들었던 유흥업소 3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업소의 영업장부와 종업원 출근부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7915〉 김종두

여학생 성폭행 인화학교 직원

9년만에 "2천만원 배상하라"

광주지법 장애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에 대해 법원이 사건발생 9년여 만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8부(부장판사 박병칠)는 28일 청각장애 학교인 인화학교 출신 A(여·24)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학교 직원 B(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0년 7월 전남의 한 수련원에서 성폭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A씨가 성년이 된 2005년 4월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한 6년 뒤인 2006년 10월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B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갖고 "시교육청과 인화학교는 성폭행 범죄자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성폭행 피해자 진술 오락가락

"핵심내용 일관되면 혐의 인정"

광주고법 성폭행 피해자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더라도 범행 순서나 내용 등 핵심 내용이 일관된다면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8일 옆방에 사는 남성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김씨의 옷차림 등에 대해 일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다는 점 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된다"며 "범행 순서 등 핵심적인 피해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밤 광주시 서구 자신의 월세방 앞에서 옆방에 사는 아버지를 만나러 온 A(15)양을 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영암 도포농협 불법선거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영암 도포농협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2명에게 3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께 모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 B씨에게 현금 30만원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모두 3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中 꽃게장 국산 속여 판매 50대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수억원대의 중국산 민꽃게로 만든 게장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여수 모 게장제조업체 대표 A(58)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중국산 민꽃게로 만든 게장에 '돌게 : 국내산/북한산'이라고 표기해 여수의 업체매장과 전화 주문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산 돌게로 게장을 만들다가 판매량이 급증해 물량을 맞출 수 없게되자 중국산 민꽃게로 만든 게장을 섞어 판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올해만 중국산 민꽃게 100t(5억9천만원 상당) 가량을 들여온 점으로 미뤄 2007년 이후 실제 판매한 중국산 꽃게장이 20억~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를 조사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생활비 마련" 야구부 숙소 턴 10대

쌍나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구부 숙소에 보관중인 용품을 훔친 모 고교 야구부원 등 중학교 동문 3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광산경찰은 28일 광주 A고교 3학년 임모(18)군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광주 A중학교 야구부 출신인 임군 등은 지난 14일 새벽 2시께 임군의 학교 야구부 숙소에 들어가 방망이와 글러브 등 야구용품 10여점을 훔친 혐의.

○…경찰 관계자는 "임군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며 "죄는 밉지만, 야구 하나에 인생을 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라며 한숨.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